

## 불안과 감염병 대처와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이중 매개효과

이 보 랫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생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불안과 감염병에 대한 대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이중매개를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세 이상의 성인 25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특성불안으로, 행동억제는 행동억제체계로 측정하였으며, 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물론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도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특성불안,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및 행동억제가 전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뿐 아니라 부적절한 대처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성불안,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및 행동억제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적절한 감염병 대처를 준거변인으로 한 이중 매개모형에서는 특성불안이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을 매개로 한 경로, 행동억제를 매개로 한 경로, 이중매개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를 준거변인으로 한 이중 매개모형에서도 특성불안이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을 매개로 한 경로, 행동억제를 매개로 한 경로, 이중매개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 모형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의 영향은 정적으로, 행동억제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총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불안, 미디어 선택 및 행동억제에 대한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감염병, 대처, 불안, 미디어, 행동억제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2020년 한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단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COVID-19)였다. 1년간 우리 국민은 생활 속에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행동을 하고 정부는 방역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 환경위생 및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한때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송영구, 2005),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유행(pandemic) 선언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이례적으로 감염력이 높으면서도 치명률이 높고 항체 비율은 낮아 전세계인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이덕환, 2020).

수백 년 전보다는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에게서 감염병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전쟁과 기아로 사망하는 것보다 감염병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Inhorn & Brown, 1990). 일례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학명으로 SARS-CoV-2인 코로나19 외에도 SARS-CoV-1인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라고 불리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novel swine-origin influenza), MERS-CoV인 메르스(MERS: 중등호흡기증후군)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위협을 받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감염병의 위협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빈성오, 2012).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감염병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삶을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감염병 대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나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거나 적

절한 감염병 예방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장해, 박주식, 이경식, 2020).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뿐 아니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심리변인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대처와 관련하여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특성에 주목하였다. 불안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반응 중 하나이다. 불안은 좋지 못한 결과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각성 수준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적응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안은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작은 위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돕는다(박한선, 2020). 불안에는 위험상황에서 개인을 조심하게 만들어 위험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이 있다(권석만, 2013). 다시 말해 정서불안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적응적 반응일 수 있는 것이다. 불안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연구로도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김옥선, 오진환, 이경혜(2016)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감염병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메르스 유행 초기에 병원 실습을 했던 간호학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였고 감염 예방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의 불안정서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조절되지 못한 불안은 현재 질병불안장애로 진단명이 바뀐 건강염려증을 유발할 수 있

다(Stewart & Watt, 2000).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은 한 번 기침을 하게 되어도 심각한 감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도 사회적 혹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과잉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안이라는 정서는 위협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면 부적용을 낳는다(Öhman, 2000). 정상적이라면 위험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불안 반응이 사라지고 안도하게 되는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권석만, 2013),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불안이 예방을 위한 강박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DSM 5판의 강박장애는 DSM 4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까지 불안장애의 하위 장애였다는 점도 불안이 강박행동을 하게 한다는 논리를 지지한다. 불안이 증진시킨 인지적 탐지능력이 강박적 반추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고(Curtis, Aunger, & Rabie, 2004), 그런 반추로 인해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감염에 대한 침투적 사고에 의해 유발된 불안과 그에 따른 위험회피 동기가 부적절한 강박적 감염병 대처 행동을 유발하는데, 결국 그런 행동이 부적으로 강화되어 더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것일 수 있다(권준수, 김중술, 이한주, 신민섭, 2002). 그런 강박적이고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하루에 50회 이상 손을 씻고 세 통의 손세정제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으며(이용승, 이한주, 2000), 치명률이 1% 정도의 감염병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직장을 그만 두고 몇 달 동안 외출을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과도한 뉴스 시청과 정보 찾기 그리고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는 ‘infodemic(정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극단적인 예로 이란에서 메탄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가짜뉴스를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 사망했다(조승환, 2020).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병에 부적절하게 대처해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기자 WHO는 SNS 기업들과 협력하여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면서 각국의 정부기관에도 그것을 위해 힘써달라는 요청을 했다(Richtel, 2020). 그러나 감염병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의 인포테믹은 바이러스보다도 그 확산 속도가 빨라 완전하게 잡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와 관련된 미디어 선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건강신념모델(Becker & Rosenstock, 1984)에서는 건강행동을 하거나 건강위험행동을 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각된 위험(Perceived threat)을 꼽고 있다. 지각된 위험이란 자신이 질병의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주관적 신념을 의미한다(Janz & Becker, 1984).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질병에 대한 위협을 지각하고 예방행동이나 대처행동을 실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런 위협에 대한 지각은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다(유선옥, 박계현, 나은영, 2010).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

인이 질병에 관한 정보를 주로 미디어로부터 전달받는다(Bryant & Thompson, 2005). 박정의와 손명세(2001)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건강관련 정보를 의사나 전문가보다 뉴스를 통하여 더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불안하면 위험을 지각하고 그와 관련된 미디어를 선택하여 정보를 얻어 그것에 대처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김활빈, 오현정, 홍다예, 심재철과 장정현(2018)의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위험을 지각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우형진(2007)의 연구에서는 TV뉴스를 시청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증진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로 감염병의 위험을 지각하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TV뉴스를 통해 습득하고 처음 가진 불안이 증폭되면 예방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위험지각을 언론이 제공한 정보로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선명하고 개인의 관여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면 위험을 지각한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차동필, 2010). 실제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초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한 독감 정도로 여겨 특별한 재난으로서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국민 홍보가 국민의 위험지각과 적절한 대처를 이끌었다고 분석되었다(왕순주, 2010). 이종수(2020)는 미

디어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질병을 가시화(Visible)하여 시각적 통제(Visual surveillance) 방식을 통해 대중의 공포를 조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러스의 현미경 사진을 통해 바이러스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면, 현대과학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게 만들기도 한다(Buiani, 2014). 위험을 지각하고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것과 관련된 불안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미디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병, 특히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에 관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질병의 실제 특성이나 예방법에 관한 것보다는 질병의 피해와 확산에 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고 분석되었다(송해룡, 조항민, 2015). 위험을 지각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자극적이면 개인이 감염병 대처를 강박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미디어의 과장된 정보가 대중에게 사망과 같은 절망적 예측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불안이 증폭되고 그와 유사한 정보를 더 찾으려고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박한선(2020)은 감염병에 대한 과국화 사고나 잠재적 오염에 대한 강박적 반추가 사재기나 지나친 대인 기피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Hopwood와 Schutte(2017)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 연구(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2014년 세

월호 피해의 생생한 모습과 보도에 자주 노출된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공격성을 보였다. 이를 연구자들은 간접 외상경험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았다. 미디어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재난 현장은 물론 범죄의 상황이나 수법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 등을 상세히 묘사하며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박형민, 이민아, 2009). 그것이 대중의 경계심을 갖게 하여 좋은 효과들을 내는 듯 보이지만 불안을 증폭하여 너무 과한 반응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디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왜곡된 정보로 인해 개인은 객관성을 잃고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홍주현, 2014). 가장 두드러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미국산 소고기나 나중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검증된 불량만두 등에 관한 미디어의 보도는 대중의 소비행동에 큰 변화를 주었다(박희제, 2012). 위험하다고 보도된 음식물을 소비하는 행동을 아예 그만 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행동이 크게 억제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지각하고 그와 관련된 미디어를 선택한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게 하여 위험한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대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변인으로 행동억제를 채택하였다. Gray(1981)는 인간에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동활성화체계(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행동억제체계(BIS: behavior inhibition system)가 있다고 개념화하였다. Gray(1981)는 BAS/BIS를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동기체계라고 설명하면서, 행동의 활성화는 행동에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생기는 쾌(快)의 정서에 의해 생기고, 행동의 억제는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혐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여 발생하는 불안, 즉 불쾌(不快)의 정서에 의해 생긴다고 보았다. BAS가 바라는 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긍정 정서, 즉 희망감이나 행복 및 기쁨을 유발하는 동기체계이기 때문에, 이 두 체계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보상을 주는 단서라기보다 부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하기 때문에 BIS가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BIS란 위협이나 처벌 등에 의해 움직임을 억제하는 심리적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교헌, 김원식, 2001).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하면 혐오적인 위협이나 피해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멈추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혐오적 결과가 생기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방행동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다(박한선, 2020).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감염병 대처의 개인차가 행동억제체계의 기질적 특성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불안이 행동을 억제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여 위험을 피하게 하는데, 불안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것 모두 중추신경계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Gamma-aminobutyric acid)체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양종철, 2006), 특별히 불안이나 행동억제가 함께 감염병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그와 관련된 미디어를 선택하게 하고 위험정보를 얻으면 행동을 억제하며 감염병에 대처하게 하는 방식, 즉 직렬로 이중 매개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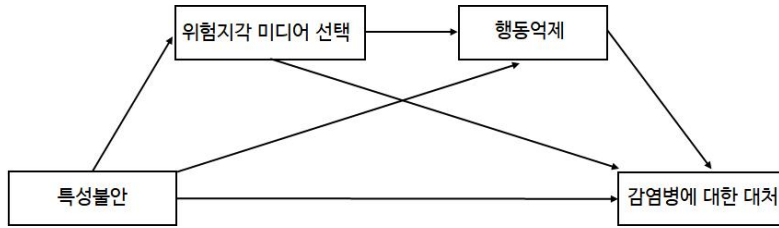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틀

지금까지 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성인의 특성적인 불안이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부적절한 대처와 상관이 있는가? 둘째, 성인의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이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부적절한 대처와 상관이 있는가? 셋째, 성인의 행동억제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부적절한 대처와 상관이 있는가? 넷째, 성인의 특성불안과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 간의 관계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이중 매개하는가? 다섯째, 성인의 특성불안과 감염병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간의 관계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직렬적으로 이중 매개하는가? 이런 연구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대중이 적절하게 감염병에 대처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행정가나 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중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적절한 대처와 부적절한 대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을 한

20세 이상의 성인 2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남성이 103명(39.8%)이고 여성이 155명(59.8%)이었으며, 한 명(0.4%)은 자신의 성별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기타’에 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1세에서 73세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39.71( $SD=11.69$ )세였다. 이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가 18.5%(48명), 30대는 41.3%(107명), 40대가 20.1%(52명) 그리고 50대 이상이 20.1%(52명)이었다.

### 조사 도구

**불안.** 참여자들의 불안 수준은 전경구 등(2020)이 개발한 정서적 스트레스 척도의 특성불안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는 특성불안 외에도 상태불안 하위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 당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보다 평소애 불안으로 나타나는 특성적인 불안을 변인으로 하였다. 이 척도에서 특성불안을 일곱 문항으로 측정하면, 각 문항은 6점(1점: 전혀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도록 되어 있다. 척도개발 연구(전경구 외, 2020)에서는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지각하고 그와 관련된 미디어를 선택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질문지 문항의 예로는 “공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편이다.”,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시간만 나면 그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를 본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등이 있다. 이 질문지는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6점(1점: 전혀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 질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지면의 한계가 있어 모든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요인분석하였을 때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이 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1.6%를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질문지의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4였다.

**행동억제.** 참여자들의 행동억제 수준은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하고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한국판으로 수정한 BAS/BIS척도로 측정하였다. BAS/BIS척도는 행동활성화와 행동억제를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행동억제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억제를 총 7문항으로 측정하는데, 각 문항은 4점(1점: 전혀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를 많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섯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9였다.

**감염병에 대한 대처.** 참여자들의 감염병 대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미사(2016)가 사용한 메르스 예방 행동 설문 문항들을 감염병 대처행동에 대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처 문항으로 사용하였고, 너무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은 개발하여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행동을 측정하였다. 적절한 감염병 대처 문항들은 ‘메르스’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수정한 것으로 그 예로는 “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었다.”, “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은 가능하면 가지 않았다.” 등이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문항으로는 강박적 예방행동이나 건강염려증과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시켰는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유난을 떠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감염병 예방을 했다.”, “나는 감염병 예방 행동을 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강박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하는 편이었다.” 등이 있다. 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도록 되어 있다.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으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명료하게 두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eigen values=7.40, 2.71),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68.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85,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95였다.

## 조사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2020년 7월, 약 한달 동안 구글(google)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

집되었다. 설문에 대한 홍보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등과 같은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에 응답을 하였을 때만 설문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완전한 설문 결과는 없었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기관심의(IRB)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2020-05-31-H-E-090218).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읽고 동의를 한 사람들만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설문지 작성 후 연구 참여자들이 시간을 내어 설문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와 Andrew Hayes에 의해 개발된 SPSS Process macro 3.5로 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5로는 기본통계와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하였고, SPSS Process macro 3.5로는 직렬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결 과

### 특성불안,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행동억제 및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의 특성불안,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행동억제 및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 수집된 자료가 모수 추론통계분석의 조건에 드는지는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정상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댓값 모두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특성불안은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r=.61, p<.001$ ), 행동억제( $r=.64, p<.001$ ), 적절한 감염병 대처( $r=.34, p<.001$ ) 및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r=.58,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특성불안은 적절한 감염병 대처와 11.6%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고,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와 33.6%의 변량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은 적절한 감염병 대처( $r=.31, p<.001$ ) 및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r=.64,$

표 1. 특성불안,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행동억제 및 감염병 대처 간의 상관행렬 ( $N=259$ )

변인	1	2	3	4	5
1. 특성불안					
2.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61***				
3. 행동억제	.64***	.25***			
4. 적절한 감염병 대처	.34***	.31***	.28***		
5.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58***	.64***	.20**	.26***	
<i>M</i>	24.15	37.69	19.82	24.43	23.04
<i>SD</i>	8.44	14.88	3.97	4.69	10.62
Skewness	.03	.13	-.16	-.98	.64
Kurtosis	-.95	-.95	-.15	.60	-.68

\*\* $p<.01$ , \*\*\* $p<.001$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행동억제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5, p<.001$ . 행동억제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 $r=.28, p<.001$ ) 및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r=.20,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와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 p<.001$ .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이중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직렬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2).

분석결과, 특성불안이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beta=1.066, p<.001$ ), 행동억제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6, p<.001$ . 이 모형에서는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이 행동억제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beta=-.060, p<.001$ ),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63, p<.01$ . 또한 행동억제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beta=.182, p<.05$ . 이 모형에서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표 2.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직렬 이중매개 효과 검증

변인	$\beta$	S.E.	t	LLCI	ULCI
특성불안 →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1.066	.088	12.17***	.8935	1.2384
특성불안 → 행동억제	.366	.027	13.36***	.3122	.4202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행동억제	-.060	.016	-3.85***	-.0905	-.0292
특성불안 → 적절한 감염병 대처	.066	.053	1.26	-.0371	.1698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적절한 감염병 대처	.063	.024	2.68**	.0168	.1095
행동억제 → 적절한 감염병 대처	.182	.092	1.98*	.0012	.3633

주. LLCI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상한값임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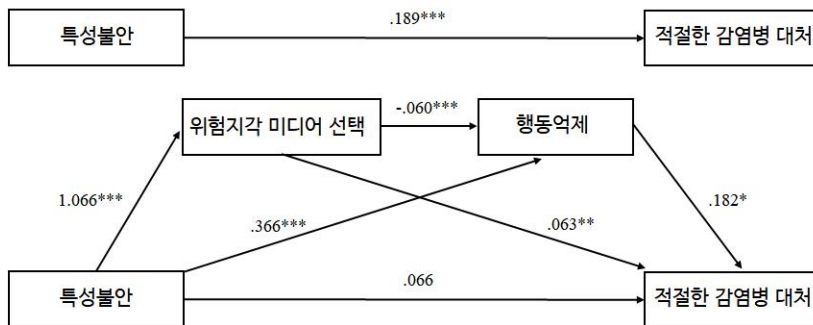


그림 2.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총 효과 및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직렬 이중매개모형

않았다,  $\beta=.066$ , *n.s.* 그렇다면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의 관계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완전하게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전체 매개효과는 .122(.0430 ~ .1983)로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또한 단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특성불안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을 거쳐 적절한 감염병 대처로 가는 경로는 효과의 크기가 .067(.0216 ~ .1143)로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특성불안에서 행동억제를 거쳐 적절한 감염병 대처로 가는 경로는 효과의 크기가 .067(.0045 ~ .1281)로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성불안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를 직렬로 이중 매개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처로 가는 경로는 효과의 크기가 -.012(-.0274 ~ -.0007)로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렬 매개효과는 크기가 크지 않았고,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이 행동억

제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특성불안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 특성불안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이중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직렬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도 분석하였다 (표 4).

특성불안이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이 행동억제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모형과 같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특성불안이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81$ ,  $p<.001$ . 또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도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beta=.291$ ,  $p<.001$ .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를 행동억제가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beta=-.541$ ,  $p<.001$ .

특성불안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도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

표 3.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간접효과

경로	Effect	S.E.	BC 95% CI
특성불안 →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적절한 감염병 대처	.067	.024	.0216 ~ .1143
특성불안 → 행동억제 → 적절한 감염병 대처	.067	.032	.0045 ~ .1281
특성불안 →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행동억제 → 적절한 감염병 대처	-.012	.007	-.0274 ~ -.0007
총 간접효과	.122	.040	.0430 ~ .1983

였다(표 5).

단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특성불안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을 거쳐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로 가는 경로는 효과의 크기가 .310(.2071 ~ .4307)로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특성불안에서 행동억제를 거쳐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로 가는 경로는 효과의 크기가 -.198(-.3384 ~ -.0766)로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성불안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를 직렬로 이중 매개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처로 가는 경로는 효과의 크기가 .035(.0115 ~ .0686)로 95% 신뢰구간에 0이 존

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이 두 변인의 이중 직렬 매개효과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를 각각 매개하는 경로보다는 직렬 이중 매개효과는 그 효과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세 가지 경로의 전체 간접효과는 .146(-.0306 ~ .3180)이었는데,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여 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 특성불안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직렬 이중매개 효과 검증

변인	$\beta$	S.E.	t	LLCI	ULCI
특성불안 →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1.066	.088	12.17***	.8935	1.2384
특성불안 → 행동억제	.366	.027	13.36***	.3122	.4202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행동억제	-.060	.016	-3.85***	-.0905	-.0292
특성불안 →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581	.092	6.30***	.3995	.7633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291	.041	7.02***	.2091	.3720
행동억제 →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541	.162	-3.35***	-.8591	-.2226

주. LLCI는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상한값임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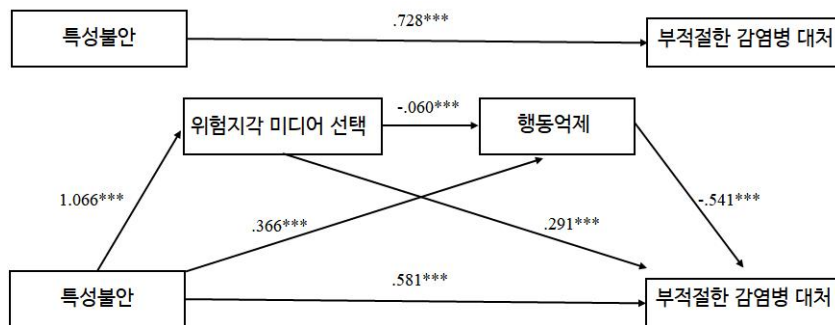


그림 3.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총 효과 및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의 직렬 이중매개모형

표 5.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간접효과

경로	Effect	S.E.	BC 95% CI
특성불안 →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310	.057	.2071 ~ .4307
특성불안 → 행동억제 →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198	.067	-.3384 ~ -.0766
특성불안 →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 행동억제 →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035	.014	.0115 ~ .0686
총 간접효과	.146	.089	-.0306 ~ .3180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특성불안,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 행동억제 및 감염병에 대한 대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특성불안과 감염병에 대한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가 직렬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에서는 특성불안이 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물론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모두와 상관이 있었다. 이는 서론에서 가정한 것처럼 불안이 적절한 수준의 감염병 대처는 물론이고 과도하게 대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암시한다. 불안에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고(권석만, 2103),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검증된 바 있었다(김옥선 외,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과도한 반응을 하는 강박적이고 부적절한 대처와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설명력은 11.6%였지만,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설명력은 33.6%였다. 이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보다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불안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결과로 불안 수준이 높으면 강박적이

고 부적절하게 감염병에 대처하고 불안 수준이 낮으면 적절하게 대처하게 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불안의 강도가 세면 더 과하게 감염병을 조심할 것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위험을 지각하게 하는 미디어의 선택도 감염병 대처와 상관이 있었다.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은 적절한 감염병 대처는 물론 부적절한 대처 모두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위험을 지각하게 하는 미디어를 많이 선택하면 적절하게 감염병에 대처하지만 부적절하게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은 적절한 감염병 대처와는 9.6%의 변량을,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와는 41.0%의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지각 미디어를 선택하면 적절하게 감염병에 대처하는 것보다 부적절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가 위험을 지각하게 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게 할 수 있지만(왕순주, 2010), 미디어가 위험을 과하게 지각하고 강박적인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한다(이종수, 2020). 그만큼 위험과 관련된 미디어 보도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대중을 감염병에 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동억제도 적절한 감염병 대처와 부적절한 대처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공유하는 변량은 크지 않았다. 행동억제는 적절한 감염병 대처와는 7.8%,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와는 4.0%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강박적 대처와 같은 부적절한 대처보다는 위험의 실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감염병 대처에 대한 행동억제의 영향력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혐오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이 BIS인데, 감염병의 대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행동을 활성화하여 외출을 하거나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출이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듯 특성불안이 위험을 지각하여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두 변인 간에는 공유하는 변량은 37.2%이었다. 이런 결과는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 그런 미디어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복잡성이 증가하였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도 커졌다(김준, 2014).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특히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지고 모호함보다는 체계적인 상황을 선호한다(Hofstede, 1980). Hindman(2004)은 체계나 명확

한 상황을 선호하게 되면 특정한 대상이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목적으로 미디어를 찾고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구교태(2014)가 재난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이 미디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전후의 대학생들의 뉴스 이용량이 변화를 조사하였더니 유의한 증가세를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불안하면 불안하게 만든 위험요인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성불안과 행동억제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두 변인 간에 공유하는 변량은 41.0%였다. 이는 행동억제체계, 즉 BIS가 불쾌의 감정 중에 불안과 상관이 있고 신경전달물질 GABA가 작용한다는 Gray(1981)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BIS가 행동을 억제하여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에는 행동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임상적으로 주목할 만큼은 아니었다. 게다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특성불안을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함께 이중으로 매개하여 감염병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에 영향을 주는 모형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이중 매개모형에서는 각각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를 통한 매개 경로는 물론 직렬 이중매개 경로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특성불안과 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불안이 주로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식과 행동억제를 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감염병에 대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상관분석 결과에서처럼 행동억제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도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모형에서는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이 적절한 감염병 대처를 하게 하는 행동억제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는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관계를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이중매개모형에서는 각각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행동억제를 통한 매개 경로는 물론 직렬 이중매개 경로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특성불안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행동억제가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관분석에서는 행동억제가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와 정적 상관이었는데, 이 모형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과장된 위험을 지각하여 강박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동억제가 개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데,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를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에 대한 특성불안의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다. 질병에 대한 불안이 너무 과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해서 하고 강박적인 예방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이인혜, 2004).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은 감염병 대처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성불안과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이 감염병 대처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와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성인들은 이 연구에서 배제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성인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성불안과 행동억제를 측정하는 도구는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인데, 코로나19 대응의 시점에 맞추어 연구해야 했고 연구 주제의 성격상 기존 척도가 없어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과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를 측정하는 도구는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타당도가 덜 할 수 있다. 위험지각 미디어 선택도 가정하 것처럼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부적절한 감염병 대처도 적절한 감염병 대처와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지만, 계속 이 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더 타당한 척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는데,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다. 논리적 타당성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서 원인과 결과로 가정하고 논의하였지만 상관연구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3), 128-147.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권준수, 김중술, 이한주, 신민섭 (2002).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57-74.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옥선, 오진환, 이경혜 (2016). 간호대학생의 메르스에 대한 불안, 지식, 감염가능성, 감염예방가능성, 감염 예방행위 이행 수준의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7(3), 59-69.
- 김준 (2014). 불안과 기독교 상담: 성경적 인지행동 접근. *성경과 신학*, 71, 85-109.
- 김활민, 오현정, 홍다예, 심재철, 장정현 (2018).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협 인식과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19, 123-152.
- 박정의, 손명세 (2001). *공중보건과 의학보도*(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1-13),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한선 (2020).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Future Horizon*, 44, 34-41.
- 박형민, 이민아 (2009).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37.
- 박희재 (2012).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인식과 위험회피 행동. *농촌사회*, 22(1), 311-341.
- 빈성오 (2012). 대학생들의 전염병에 대한 지식, 지각, 태도, 예방행동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보건정보 통계학회지*, 37(2), 57-71.
- 송영구 (2005). 전염병의 역사는 '진행 중'. *대한내과학회지*, 68(2), 127-129.
- 송해룡, 조항민 (2015)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6), 45-68.
- 양종철 (2006). 불안과 GABA 체계. *대한불안학회지*, 2(2), 79-85.
- 왕순주 (2010). 신종전염병 유행의 대처-신종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지*, 10(1), 82-91.
- 우형진 (2007).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시청자의 건강증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2), 308-333.
- 유선욱, 박계현, 나은영 (2010). 신종플루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공포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3), 27-53.
- 이덕환 (2020). 코로나19의 과학과 '인포데믹'. *철학과 현실*, 126, 181-194.
- 이용승, 이한주 (2000). *강박장애*. 서울: 학지사.
- 이종수 (2020). 코로나19 관련 CNN 뉴스 영상분석: '타자'의 질병에서 '우리'의 질병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5(2), 245-298.
- 이흥표, 최윤경, 이재호, 이흥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이인혜 (2004). 불안과 건강염려증의 관계에서 인지편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3, 87-109.
- 장해, 박주식, 이경식 (2020).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적 행위 단서로서의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2(2), 265-302.
- 전경구, 서경현, 김원중, 성한기, 탁진국, 정귀임, 이주열, 이경숙, 이윤정, 배재창, 양선이, 양경희, 김명숙 (2020). 정서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75-95.
- 조승환 (2020, 8, 13). 코로나19 가짜뉴스로 1~3월 사이 800명 숨졌다. *동아시아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006>에서 2020, 11, 12 자료 얻음.
- 차동필 (2010). 건강관련 위협에 대한 마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차원 건강통제소재가 공중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인문연구*, 58, 647-674.

- 홍주현 (2014). 취재원으로서 SNSs 정보와 언론의 매체 가시성(media visibility)과 정확성, 자극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8(1), 252-4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cker, M. H., & Rosenstock, I. M. (1984). Compliance with medical advice. In A. Steptoe & A. Mathews (Eds.), *Health care and human behavior*. London: Academic Press.
- Bryant, J., & Thompson, S. (2005). 미디어 효과의 기초[*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배현석 역). 서울: 한울. (원전은 2001에 출판).
- Buiani, R. (2014). Innovation and compliance in making and perceiving the scientific visualization of viruse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9(4), 539-556.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urtis, V., Aunger, R., & Rabie, T. (2004). Evidence that disgust evolved to protect from risk of disease.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271(4), 131-133.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 (Ed), *A model for personality*(pp. 246-276). Berlin: Springer-Verlag.
- Hindman, D. B. (2004). Media system dependency and public support for press and president.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1), 29-42.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 Beverly Hills, CA: Sage.
- Hopwood, T. L., & Schutte, N. S. (2017). Psychological outcomes in reaction to media exposure to disasters and large-scale violence: A meta-analysis. *Psychology of Violence*, 7(2), 316-327.
- Inhorn, M. C., & Brown, P. J. (1990). The anthropology of infectious diseas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1), 89-117.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 Behavior*, 11(1), 1-47.
- Öhman, A. (2000). Fear and anxiety: Evolutionary, cognitive, and clinical perspectives. In Lewis M., & Haviland-Jones, J. M. (eds.). *Handbook of emotions* (pp. 573-59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ichtel, M. (2020, 2, 6). W.H.O. fights a pandemic besides coronavirus: An 'infodemic'.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2/06/health/coronavirus-misinformation-social-media.html>.
- Stewart, S.H., & Watt, M.C. (2000). Illness attitude scale dimensio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anxiety related constructs in anon-clinical sampl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1), 83-99.

원고접수일: 2020년 11월 25일

논문심사일: 2020년 12월 22일

게재결정일: 2021년 1월 5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1. Vol. 26, No. 1, 91 - 107

---

#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Media Selection in th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on Anxiety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Bo-Ram Lee                      Kyung-Hyun Suh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amongst 259 Korean adults over the age of 20, and examine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media selection in th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on the relationship. Anger was measured by trait anger, behavioral inhibition was measured by 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and the level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 was also measured.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that trait anger, media selection with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copings with infectious disease.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rait anger, media selection with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a mediating model of appropriate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 the path trait anxiety mediated by media selection with risk perception, the path mediated by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 path mediated by both variables were all significant. However, the direct path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In a mediating model of inappropriate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 the path trait anxiety mediated by media selection with risk perception, the path mediated by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 path mediated by both variables were also significant. The total indirect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as the effect of media selection with risk perception was positive, and the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was negative in this model. This study provided useful findings about the role of trait anger, media selection with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Korean adults'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Keywords:* infectious disease, coping, anxiety, media, behavioral inhibition